

# 철학교전강독9

우리는 왜 악마가 되는가?

“저항과 복종 사이, 그곳에 구원이 있다!”

정진우 교수







# ADOLF EICHMANN은 무죄인가?



대학살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가?

만일 국가의 명령에 불복했더라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나에게 명령한 국가의 죄다.

나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고 국가 명령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었다. 나의 유죄는 복종에서 나왔으며, 복종은 미덕이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

## 사형!



# HANNAH AREN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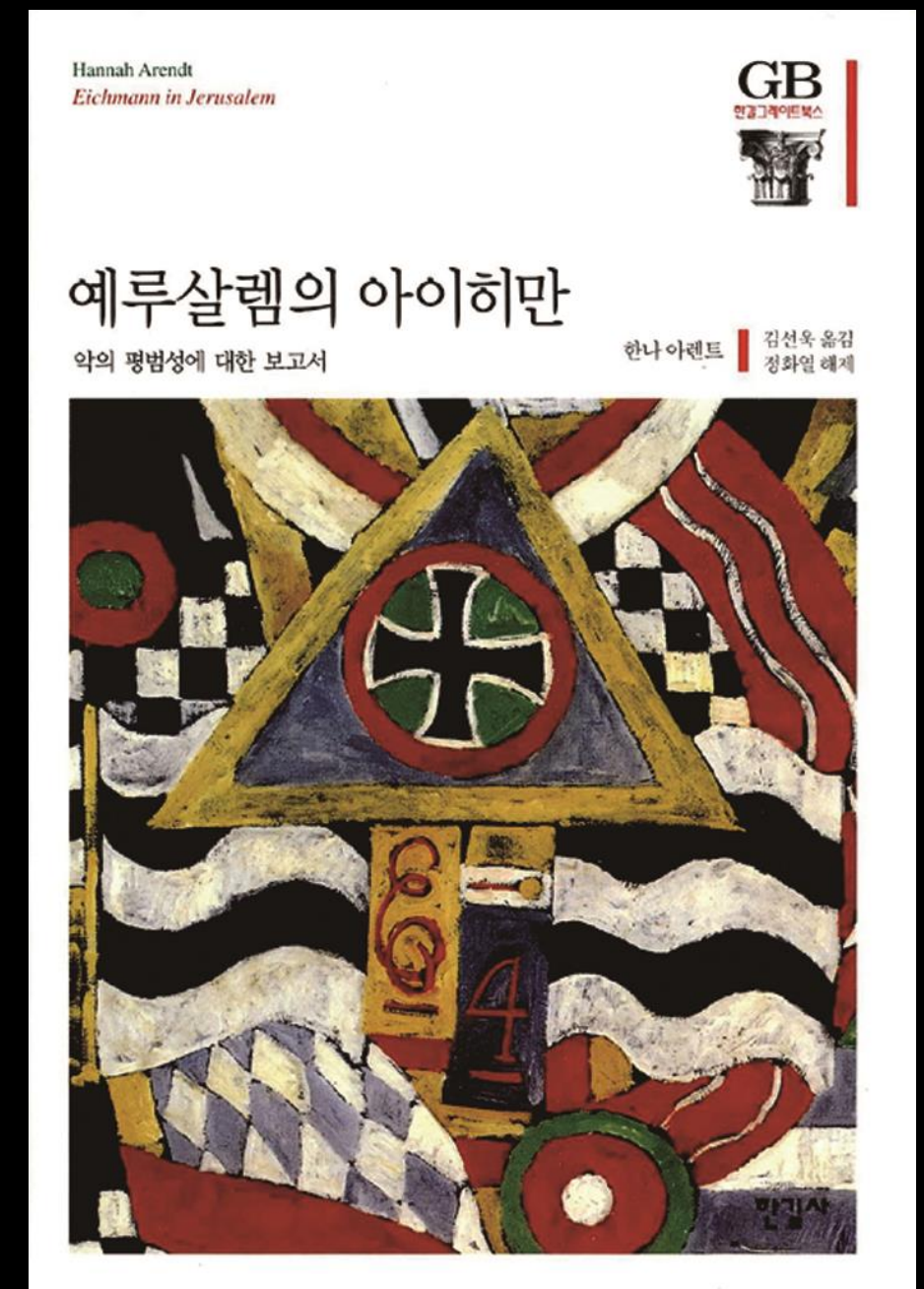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다.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가 불트만과 하이데거에게 배운다. 하이델베르크의 야스퍼스를 찾아 그의 지도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이란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후 아렌트는 정치적 억압과 유대인 박해가 점차 심해지던 독일에서 시온주의자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뒤, 1933년 프랑스로 망명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1941년에 미국으로 망명한다.

유대인 학살의 핵심 책임자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자 아렌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재판에 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Eichmann in Jerusalem*』을 쓰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설명한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개념은 수많은 논쟁을 낳았다.



# EICHMANN IN JERUSALEM

그는 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는 변론과정에서 자신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칸트의 ‘정언명령’ 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그  
는 ‘정언명령’ 을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오인하  
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정언명령’ 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행위를 할 때마다 자기 행위의 규범이 보편법칙이  
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 한 뒤, 그 보편법칙을 자신의 의지와 일  
치시켜 행위 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는 것, 그것  
이 칸트 윤리학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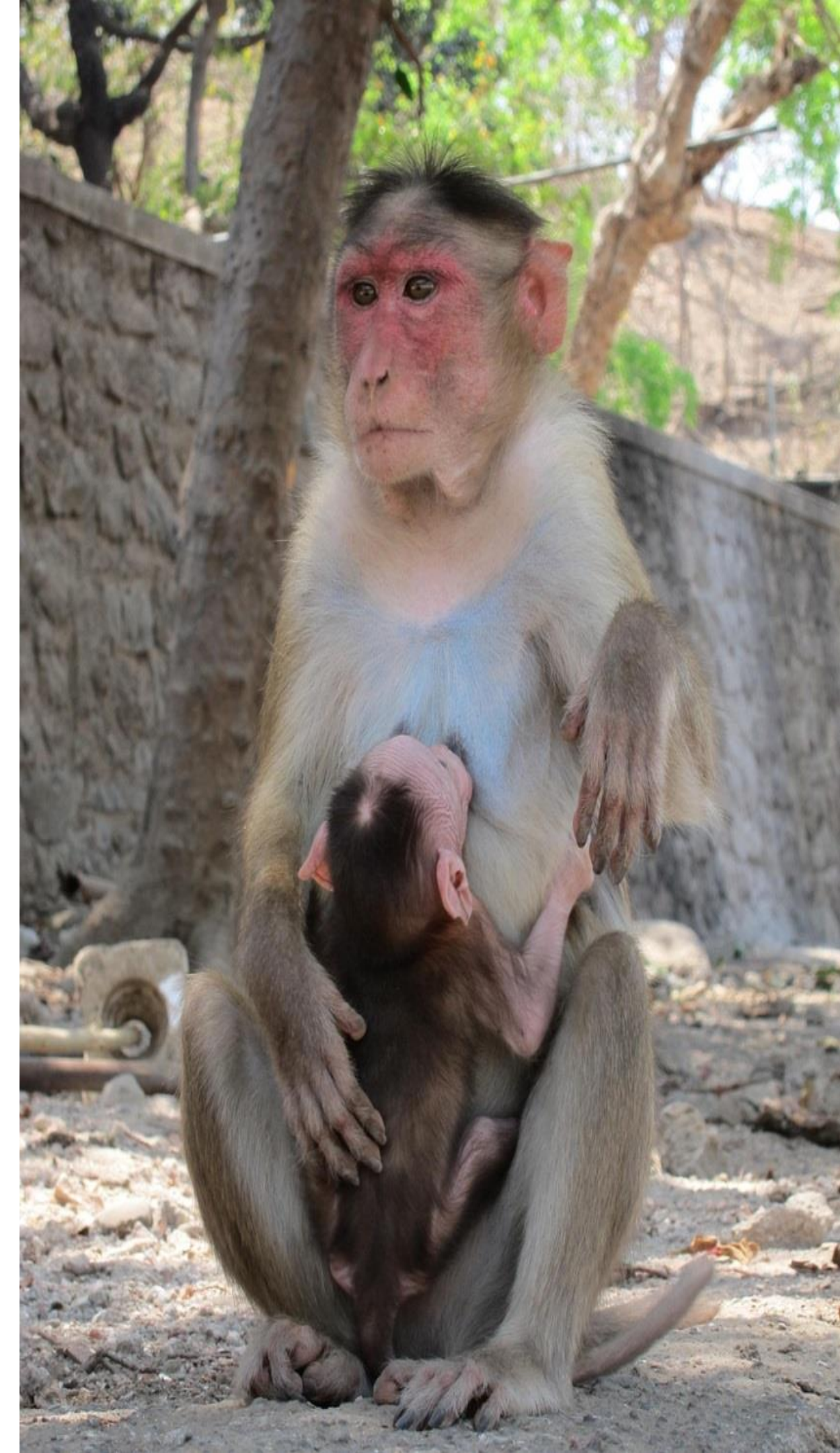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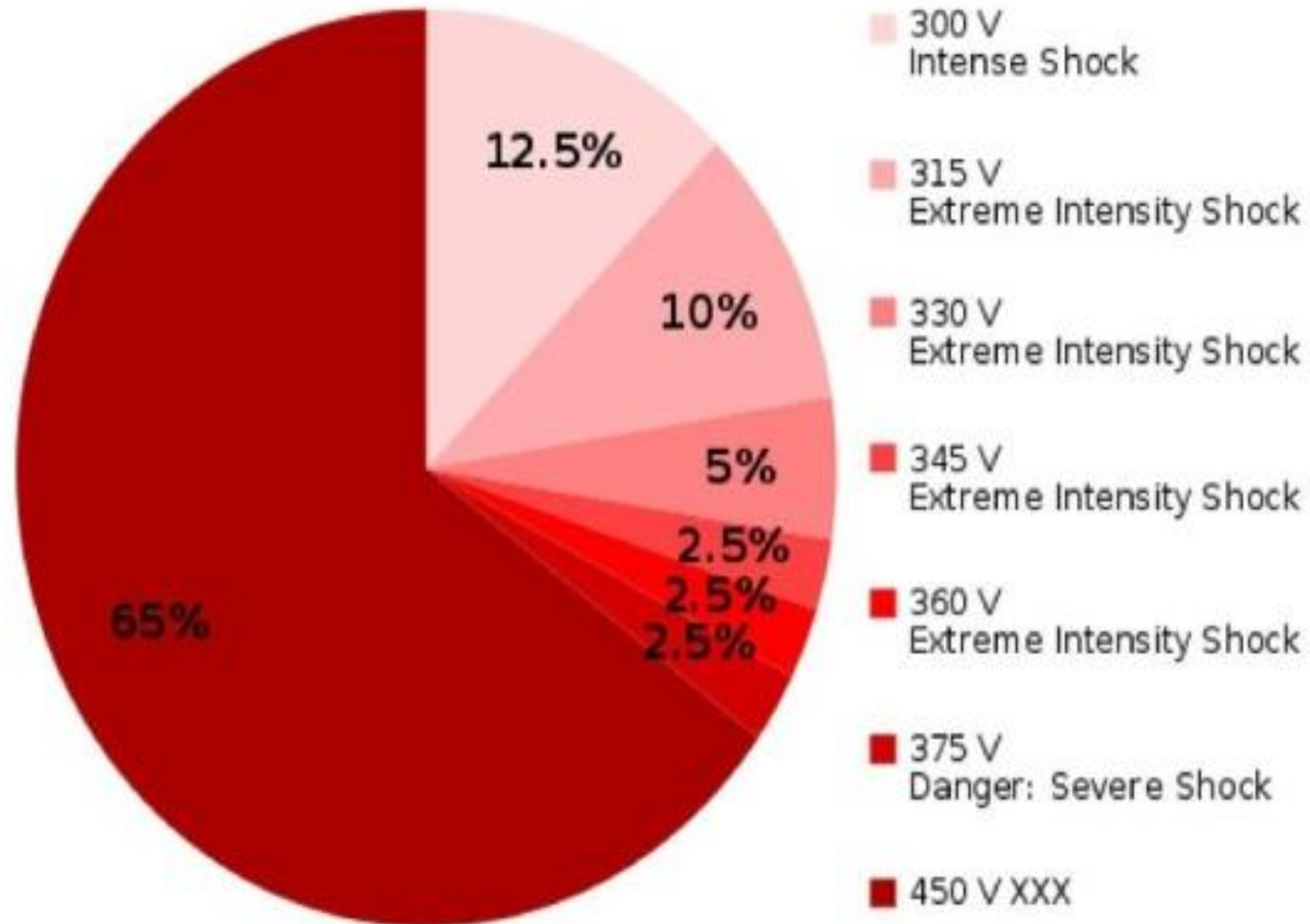


# YALE UNIV. STANLEY MILGRAM EXPERIMENT ON OBEDIENCE





# Obedience





# BANALITY OF EVIL

도덕적인 사람이 왜 부도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가?

악의 근원: 전체주의

악의 평범성: 부당한 명령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유의 무능력

## 악의 평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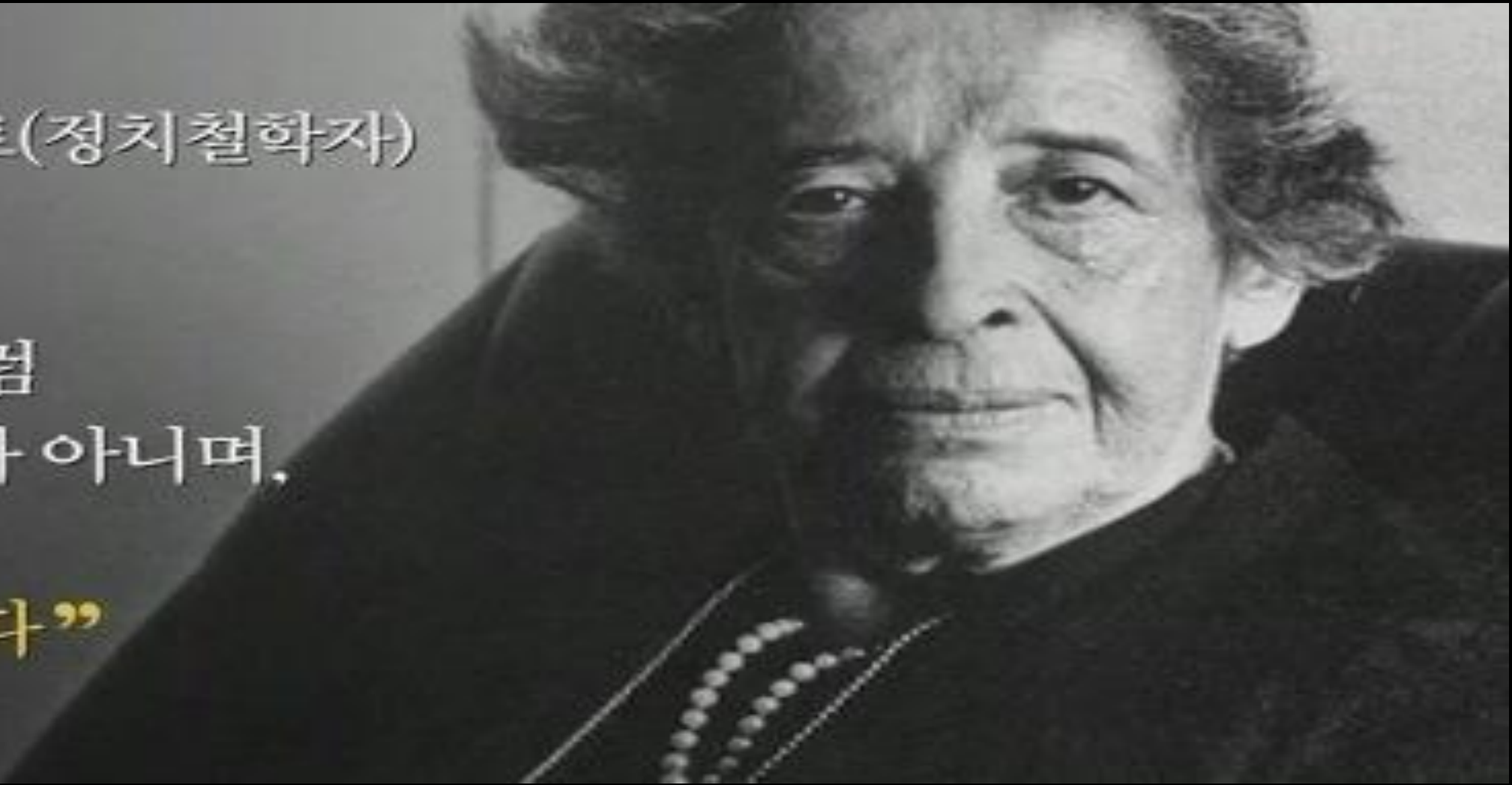




# EICHMANN IN OUR MIND!

악의 평범성 - 한나 아렌트(정치철학자)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 THOUGHT-LESS-NESS!





# BETWEEN RESISTANCE AND OBEDIENCE

NICHOLAS WINTON



# 다시, 우리가 철학 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중에서





**THANK YOU FOR YOUR EFFORT!**

**SEE YOU NEXT TIME!**

**Prof. Jin-Woo, 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hilosjw@gmail.com**